

[제 3주제]

충청남도 해양수산물 발전방향

- 한상욱 부장(충남발전연구원) -

충청남도 해양수산국 발전 방향

한상욱(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)

2 쪽



Contents

- 01. 주제발표 취지
- 02. 충청남도 해양수산 현황
- 03. 중앙 및 타 지자체 주요 업무
- 04. 해양수산국 발전방향

주제발표 취지 및 목적

- 새정부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부 부활로 국가차원의 해양수산 분야 중요성 인식
 - MB정부시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가 새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부활
- 충청남도는 환황해권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비전 선포 준비 중 및 해양수산국 신설
 - 도청이전에 따른 내포시대의 개막, 환황해권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해안 비전 준비중
 - 과거 농업시대에서 해양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체로서 해양수산국 신설
-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은 기존 업무의 집합형태로 해양수산 고유 업무 추진에는 한계
 - 해양, 항만, 수산, 관광의 집합형태이지만, 전문화된 업무 영역 수행은 미흡



현실에 부합하고, 충청남도만의 특색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 모색

충청남도의 현 위치는?

2.1 해양수산국 기본현황

- 3과 11담당, 52명으로 작은 형태로 출발
 - 해양항만과(16명) : 해양정책, 항만, 연안관리, 해양환경레저
 - 수산과(25명) : 수산행정, 어업지도, 수산자위, 어촌어항
 -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(11명) : 총괄지원, 피해배상, 환경복원
- 해양항만, 수산등은 중앙정부업무의 집행적 수준(운영, 관리 등), 유류사고지원과는 업무지원 중심
 - 해양항만과 : 항만개발, 항만운송, 연안보전에 관한 사항
 - 수산과 : 수산진흥종합계획수립, 수산물 품질관리 및 시설 확충, 어장 승인 및 면허 조정
 - 유류사고지원과 : 피해 배 · 보상 지원, 재판 후속지원, 주민건광관리 등
- 예산규모 897억원으로 道 일반회계의 1.76% 수준으로 미흡

2.2 해양항만 현황

- 항만은 무역항 5개소, 연안항 2개소, 61선석, 물동량은 전국 10.2%(2012 기준)
 - 무역항 - 국가관리 : 당진항(27선석), 대산항(27선석), 장항항(2선석)
- 지방관리 : 보령항(2선석), 태안항(3선석)
 - 연안항 : 대천항(1,557m), 비인항(436m)
 - 물동량 : 당진항(39,634천톤), 대산항(70,120천톤), 장항항(1,307천톤), 보령항(12,240천톤), 태안항(12,580천톤)
- 지방관리 무역항 1,397척, 월평균 116척(2012), 전년대비 지속적 감소 추세
 - 선박입출항(척) : 계 1,397 보령항 676 태안항 721
 - 화물반출입(톤) : 계 24,820,080 보령항 12,239,710 태안항 12,580,370
 - 세입(백만원) : 계 13,137 보령항 8,518 태안항 4,619
- 전국 무역항 31개소, 국가관리항 14개, 지방관리항 17개
 - 국가관리 : 경인, 인천, 당진·평택, 대산, 장항, 군산, 목포, 여수, 광양, 마산, 부산, 울산, 포항, 동해·묵호
 - 지방관리 : 서울, 태안, 보령, 완도, 삼천포, 통영, 장승포, 옥포, 고현, 진해, 호산, 삼척, 옥계, 속초, 제주, 서귀포, 하동

2.2 해양항만 현황

- 하역능력은 전국대비 17%, 대산항 15%, 당진항 367%으로 당진항 급속한 증가세, 전국 5위(평택·당진항)
 - 전국 화물처리현황(천R/T) : 부산 311,638, 광양 235,557, 울산 196,872, 인천 143,431,
평택·당진(100,525),-당진 39,634 대산(70,120), 포항(62,236)
- 정기항로는 컨테이너 18개 항로, 여객항로는 5개항로 충남 1개(2014) 취항
 - 대산항 : 컨테이너 - 3개사/5개항로 여객항로 1개항로(2014 취항)
 - 당진항 : 컨테이너 8개사/13개 항로 여객항로 4개사/4개항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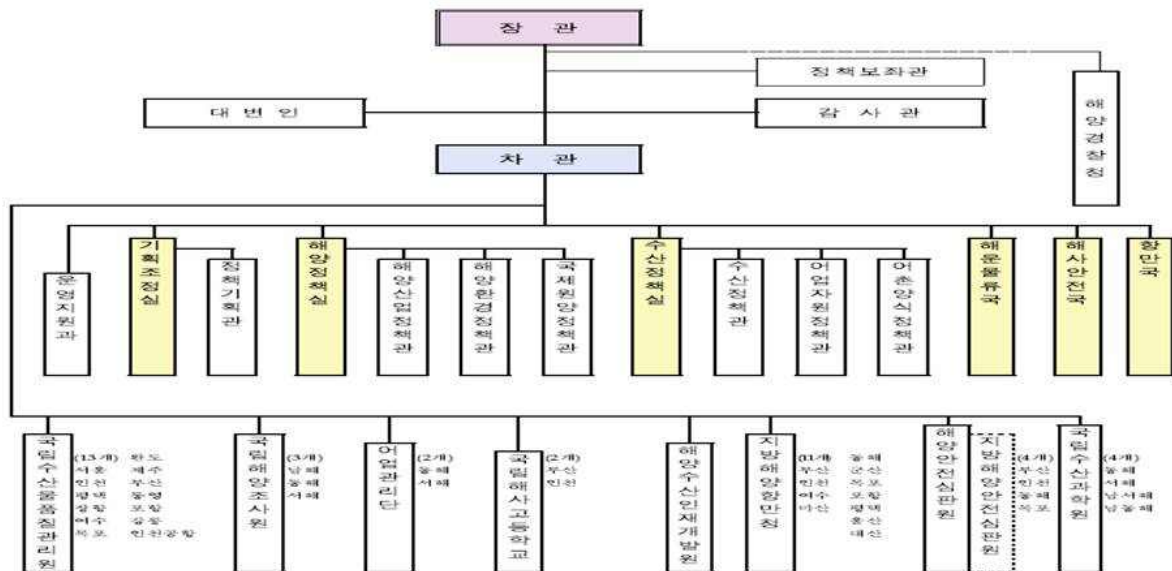
2.3 수산 현황

- 해안선 전국 7.8%, 갯벌 전국 14.4%
 - 해안선 : 1,276km(전국 14,045km의 7.8%)
 - 갯벌 : 358.8km²(전국 2,489.4km²의 14.4%)
 - 어가는 전국 15.5%, 어선은 전국대비 영세하고, 낚시어선은 월등히 높은 점유율
 - 어가 : 9,538호(전국 61,793호의 15.5%)
 - 인구 : 22,270명(전국 153,106명의 14.5%)
 - 어선 : 6,076척(전국 75,031척의 8.0%), 5톤이하 4,957척 81.5%
 - 낚시어선 : 1,049척(전국 4,706척의 22.3%, 도내어선의 17.4%)
 - 어가소득은 37백만원, 수산물 생산은 전국 3.5%, 수출은 전국 2.4%
 - 어가소득 : 37,381천원, 부채 : 39,518천원
 - 수산물 생산 : 112천톤, 4,702억원9(전국 3,183천톤의 3.5%)
 - 수산물 수출 : 57,000천불(전국 236,100천불의 2.4%)
- (김 37,197 바지락 12,521 키조개 3,177 게맛살 2,022 피조개 1,958)

중앙 및 타지자체의 업무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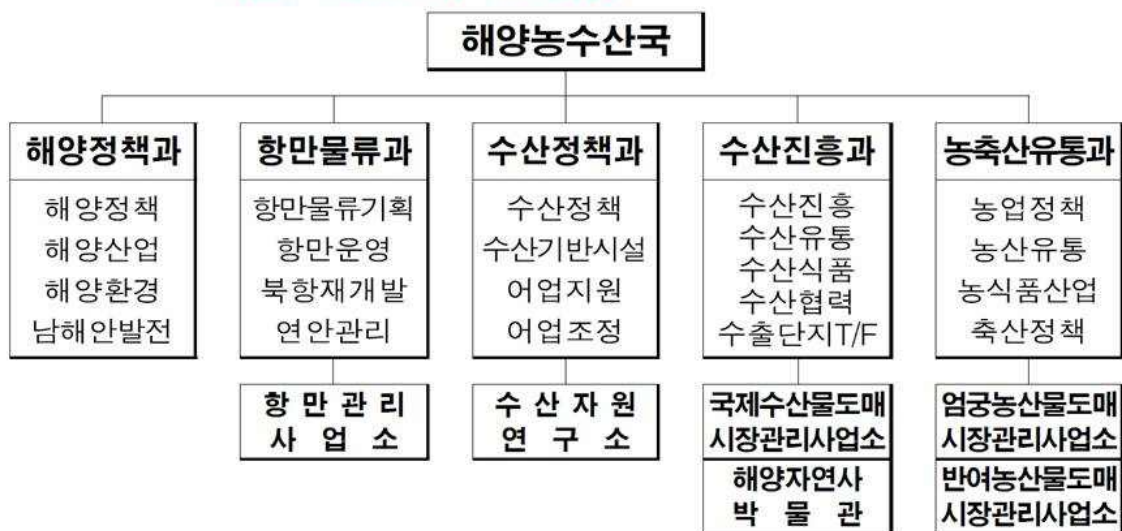
3.1 해양수산부 현황

- 1차관, 3실, 3국, 9관(41과), 3,790명(본부 508명), 소관법령 90개, 예산 4조 2,660억원(2013)
 - 소속기관 : 74개(1차 20개, 2차 43개, 3차 11개)
 - 책임운영기관 : 3개(국립수산물과학원, 대산청, 울산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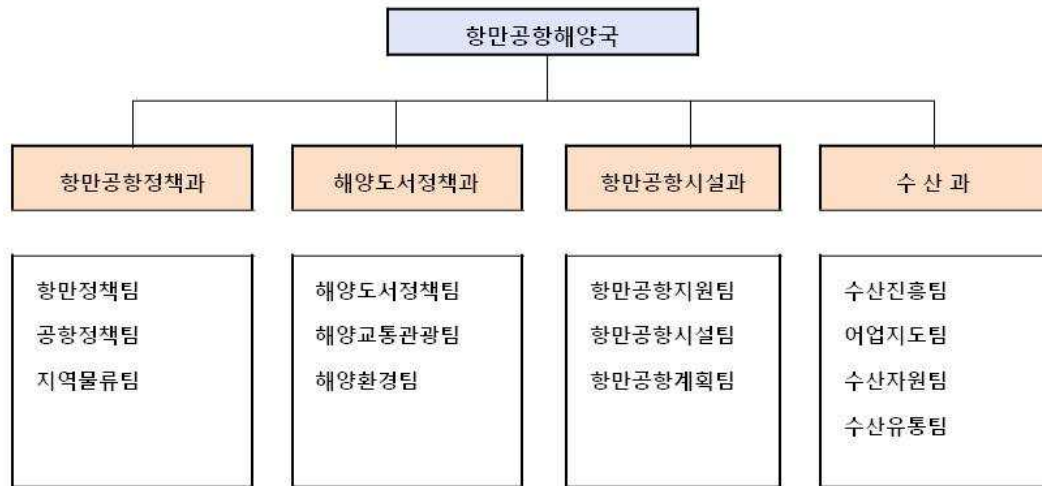
3.2 부산시 해양농수산물

- 5과, 20담당, 1T/F, 6사업소, 279명, 정책중심의 편제, 남해안발전별도 담당
 - 해양정책과 : 해양정책, 해양산업, 해양환경, 남해안 발전
 - 항만물류과 : 항만물류기획, 항만운영, 북항재개발, 연안관리
 - 수산정책과 : 수산정책, 수산자원조성, 어선어업지원, 어업안전지도
 - 수산진흥과 : 수산진흥, 수산유통, 수산식품, 수산협력



3.3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

- 4과, 13팀, 2사업소, 106명, 정책중심의 편제, 공항정책과 연계
 - 항만공항정책과 : 항만정책팀, 공항정책팀, 지역물류팀
 - 해양도서정책과 : 해양도서정책팀, 해양교통관광팀, 해양환경팀
 - 항만공항시설과 : 항만공항지원팀, 항만공항시설팀, 항만공항계획팀
 - 수산과 : 수산진흥팀, 어업지도팀, 수산자원팀, 수산유통팀



3.4 경기도 농정해양국

- 농정해양국 개편(과거농정국, 2013. 4), 5과, 24팀, 해양항만정책에비중
 - 과거 농정국에서 해양항만정책과 신설, 해양수산과 분리
 - 해양수산자원연구소 : 양식시험연구 및 보급, 실용 수산기술 개발 및 보급, 바다강하천 생태조사, 해양환경 연구, 갯벌 이용관리, 생태학습관, 질병관리원 운영, 수산 전문인력 관리 및 육성



3.5 경상남도 해양수산국

○ 3과, 14담당, 해양수산부 개편 대비 2013.1 신설

- 해양수산과 : 해양수산업담당, 어촌개발담당, 해양보전담당, 연안관리담당, 수산물유통담당
- 어업진흥과 : 어업진흥담당, 양식산업담당, 자원조성담당, 어업지도담당, 어업지원담당
- 항만물류과 : 항만정책담당, 항만운영담당, 항만개발담당, 물류담당



3.6 전라남도 농정해양국

○ 3과, 13담당, 해양수산과학원,쓰레기,수산업(수출)중심,갯벌·천일염에중심

- 해양항만과 : 해양경영담당, 항만물류담당, 해양개발담당, 해양보전담당, 완도항 담당
- 수산자원과 : 친환경수산업담당, 어선어업담당, 자원조성담당, 어업지도담당
- 해양생물과 : 해양바이오담당, 수산기업화담당, 수산식품담당, 천일염담당
- **해양수산과학원**
 - 수산기술연구부 : 기술지원과, 목포·여수·고흥·장흥·강진·해남·영광·진도센터
 - 각 센터별 테마부여 연구(어류패류,친환경수산,해양미생물,해삼,미래수산 등)
 - 해양자원연구부 : 국제갯벌연구소, 민물고기연구소, 해조류연구소, 전복연구소, 해양수산과학관, 섬진강어류생태관

해양항만과	해양경영담당
	항만물류담당
	해양개발담당
	해양보전담당
	완도항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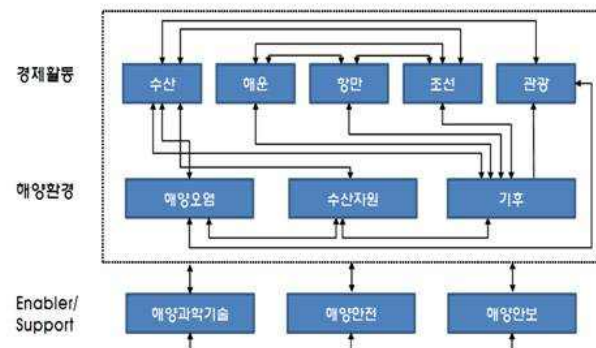
수산자원과	친환경수산업담당
	어선어업담당
	자원조성담당
	어업지도담당

해양생물과	해양바이오담당
	수산기업화담당
	수산식품담당
	천일염담당

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은?

4.1 해양산업의 중요성 부각에 대응 / 거시적 흐름

- 해양산업은 21세기 개척분야로 오래전부터 인식 되었고, 다양화 추세
 - 해양산업은 지리적·공간적 측면에서 해양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, 투입(input)과 산출(output)이 해양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
 -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에 따라 조선·해운·항만·수산업 등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, 견인차 역할을 수행
 -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해운·항만·조선이 견인하고 있으며, 해운은 세계 10위, 항만 9위, 조선 1위 그러나, 수산은 13위, 해양관광산업은 22위로 취약한 수준(해양수산부, 2006)
 - 해양산업은 바다와 관련된 활동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수



자료) 해양수산부, 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 최종보고서, 2006.

4.2 밀접한 관련 기능의 통합 · 관리 및 정책기능의 확충 / 조직적 측면

- 지방분권차원의업무 지방 이관 등 관련 행정수요 충족
 - 시대적인 흐름인 지방분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, 이것은 충청남도 자율 행정의 융통성과 관련
 - 따라서, 향후 항만관리 · 연안관리 · 해양환경 · 해양관광 · 수산기술 지도 · 보급등의 관리 기능 중심의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대한 전문 인력 · 행정조직의 증가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
- 해양관련업무는 다양한 활동이 밀접하게 연관되므로, 통합 · 관리체계 필요
 - 타지자체의 경우, 대부분 수산 및 어촌부문, 항만(물류) 부문의 통합하여 “국”단위로 추진
 - 이후 정책 추진의 구체성 결여, 분산된 관련 조직간의 통합 추진 어려움으로 행정조직 및 기능을 통합 · 집중 · 보완하는 추세
 - 또한, 시대적 흐름에 맞춘 신생 분야(항만재개발, 해양레저 · 관광 등)의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요구됨
- 단순 집행 기능에서 탈피한 정책(기획)기능의강화
 - 지자체의 경우, 거시적 흐름과 중앙정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주도권을 쥐고,
 - 지자체의 특성을 극대화하고, 주민 수요에 기반한 현장밀착형의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므로, 추진 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시의적절한 정책기능의 강화 요구

4.3 충청남도 현실에 기반한 특성화 방향의 설정 및 추진 / 기능적 측면

- 충청남도는 북부권의 항만 기능과 중남부의수산업 · 환경기능이양대축
 - 충청남도 북부권은 당진·대산항 중심의 항만기능을 다양화하고, 기능간의 복합화,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고도화가 관건
 - 또한, 북부권의 항만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남부(태안, 보령, 서천)항만 특성화도 관건
 -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의 다각화 · 고도화 ·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야 함
 - 충청남도의 자랑인 갯벌, 천혜의 연안(경관) 자원에 대한 보전 · 활용이 전제
- 단일업무수행이 아닌복합화, 다양화, 구체화 등이 전반적으로요구
 - 항만 : 반입 · 환적 → 물류기능의 체계화, 항만의 복합화, 주변산업기능과의 연계, S/W 및 국제교류 강화
 - 수산 : 어업(기반구축) → 유통, 가공, 수출, 브랜딩, R&D, 인력양성, 기업화, 내수면 등으로 다양화
 - 환경 : 보전 · 관리 → 기후변화 대응, 안전 등으로 다양화
- 전략적기능 설정에 따른 전담기관 구성 · 운영 및 다양한 관련재(기관)간의네트워크의강화
 -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경우, 항만, 수산, 박물관(전시) 분야에 직속기관을 두고 있음
 -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실, 경남 해양수산과학원, 해양항만연구센터(2014 예정)
 - 해양수산분야의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의 해양수산, 항만물류 외에 관광, 환경, 안전, 자원, 에너지, 과학기술, 외교 등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필요

감사합니다